

1990년경 HIV에 감염되기 전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던 생각이나 해외로 나가 일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990년경)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나의 생각

최종화 *주부

1990년경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살 때였다. 일본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에이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은 외국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 가장이 직장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회적, 가정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다. 그때 당시의 에이즈에 대한 상식은 죽는 병이라는 사실과 전염과정에 대한 안 좋은 시각으로 인해 불결하고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다. 지금도 별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치 지난날 나병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시 이 드라마에서도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부인의 절망, 배신감에 이어지는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칫솔 따로 쓰기, 물론 심지어는 식기, 세면 도구 등 생활기구 등 모든 것을 따로 쓰며 공포에 떠다. 물론 회사에서는 파면이고 이웃의 눈총 또한 따가워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외국 출장이 잦은 남편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불안해 지기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 외국 남자배우 가운데 에이즈로 죽은 록 허드슨 등 다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헌혈 또는 매혈된 피를 통해서 병을 고치려다 병을 얻게 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에이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텔레비전, 홍보 책자 등을 통해서 좀 더 에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에이즈에 대해서 정확한 감염경로를 홍보하며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환자와 감염인에 대한 관리, 헌혈 시 감염여부를 검사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이와 함께 건전한 성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의 문란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며 특히 동성애를 통해 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 외국 남자배우 가운데 에이즈로 죽은 록 허드슨 등 다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헌혈 또는 매혈된 피를 통해서 병을 고치려다 병을 얻게 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그들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결국 에이즈환자라는 낙인은 똑같으니까.

이따금씩 에이즈 환자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 감염된 경우를 신문 기사로 접했을 때, 병원의 주사바늘, 치과 치료 시 기구들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일회용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소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슬쩍 확인을 해보기도 한다.

이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니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성교육을 시킨다. 온 가족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신앙 대화를 통해 주로 혼전 순결 교육을 시켜 왔다. 성생활이란 하나님의 창조사업의 하나이고 사랑의 완성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다소 고리타분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얘기해주고 있다.

이제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생각할 때

작년 영화 '너는 내 운명'을 보면서 환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

다. 신체적 고통과 함께 더욱 그들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사회적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잘 못된 관심이 그들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에이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위 공동체에도 건강한 성의식과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 한다. 에이즈에 대해서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생각 깊이 들어가 보면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처음 병명을 접했을 때의 사회 분위기, 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대처 등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병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린 환자들과 함께 하며 돌보는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길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두렵다고 낙인찍고 있는 에이즈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